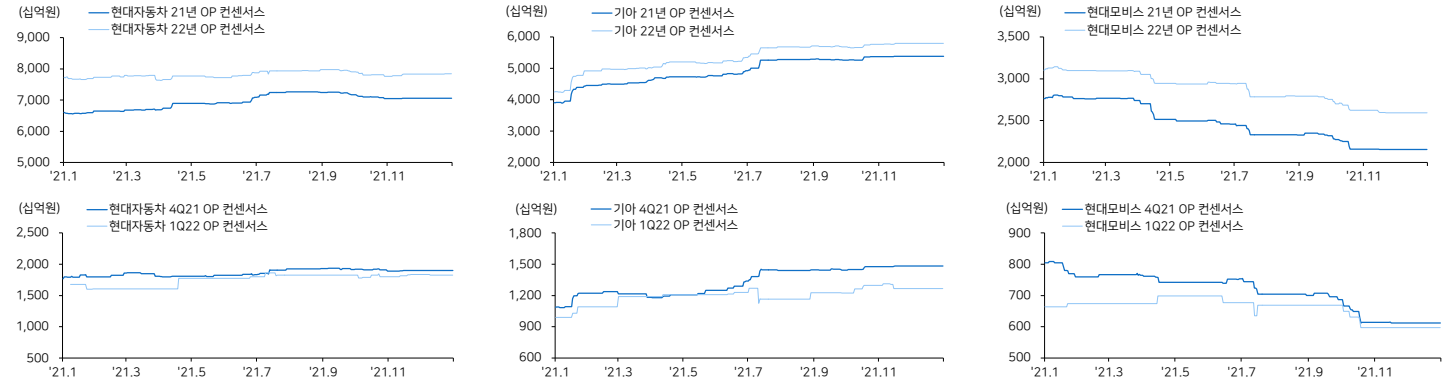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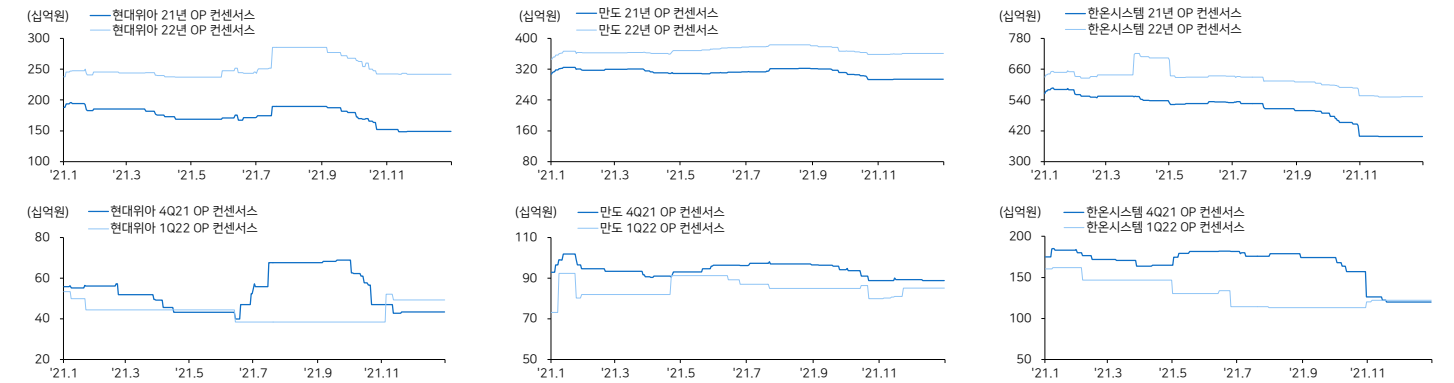


커버리지 컨센서스 추이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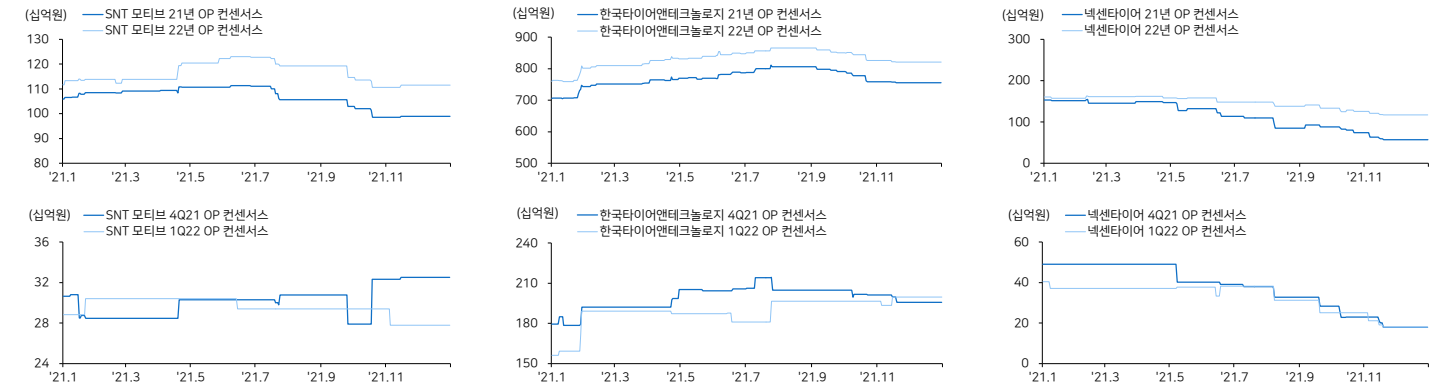
현대차 / 기아 /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 만도 / 한온시스템



S&T모티브 / 한국타이어 / 넥센타이어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국내외 주요 뉴스

모서널 CEO "자율주행 시장 규모 키워야...현대차와 협력 이유" (이투데이)

모서널 CEO는 현대차와의 협력 이유를 '자율주행 시장 규모 확대를 위한 제품 비용 최적화'라고 인터뷰에서 밝혔. 또한 승차공유와 자율배달 서비스를 수요에 따라 번갈아 수행하여 운영을 극대화해, 모서널의 자율배달 시장 진출의 수위 강화를 전망. <https://bit.ly/3tjtfmM>

현대차, 베트남서 도요타 누르고 2년연속 판매 1위 (파이낸셜뉴스)

12일 베트남자동차협회(VAMA)에 따르면 현대차는 지난해 총 7만518대를 판매하며 최대 판매 브랜드에 올라섬. 도요타는 6만 7,533대로 2위, 기아가 4만5,532대로 3위를 차지함. 현대차는 '20년부터 도요타를 누르고 베트남 판매 1위를 유지 중. <https://bit.ly/3Fh5Ogl>

VW sales hit 10-year low in 2021, BMW races ahead (Reuters)

VW 그룹은 2021년 인도량 890만대로, 최근 10년 중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 반면 BMW는 221만대를 인도하며 사상 최대 인 도량을 기록함. VW그룹의 BEV 인도량은 '20년 대비 두 배 상승하여 총 판매의 5.1%를 차지함. <https://reut.rs/3reUgoQ>

Redwood CEO JB Straubel talks battery supply crisis (Teslaart)

Redwood CEO는 향후 몇 년 동안 배터리 공급과 관련된 문제가 '반도체 공급부족 2.0' 버전이 될 수 있다고 밝혔. 또한 늦게 진 입하는 EV 제조사에게는 배터리와 소재의 충분한 공급 확보가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함. <https://bit.ly/3qItAU4>

車에 올라탄 반도체 공룡들...미래차 반도체 개발 러시 (아이뉴스24)

반도체 공룡들의 차량용 반도체 개발 러시가 이어지는 중. 모빌이사는 '23년 출시 자율주행 칩 'EyeQ Ultra'를 공개, 퀄컴은 '스냅드래곤 라이드'를 공개함. 차량용반도체 시장은 CAGR 9% 성장해 '26년 87조 원 규모로 성장할 전망. <https://bit.ly/3nkrWwU>

전기차 '아이오닉6·니로·GV70'美시장 본격 공략 (머니S)

현대차그룹은 올해 미국에서, 아이오닉5, 아이오닉6, 니로 EV 신형, EV6, 제네시스 GV60, 제네시스 GV70 전동화 모 델, 제네시스 G80 전동화 모델을 선보일 예정. 총 7개의 전기차 모델로 미국 시장에서의 성장을 도모. <https://bit.ly/3FifHW>

China's annual auto sales climb for first time since 2017 (Reuters)

지난해 중국 자동차 판매가 NEV 판매에 힘입어 2017년 이후 처음으로 증가, 2,628만대(yoy +3.8%)를 기록함. CAAM은 집 부속과 원자재 가격 등의 문제 완화를 근거로, 2022년 생산과 판매가 2021년보다 개선될 것이라고 밝힘. <https://reut.rs/3nlyqg5>

EV sales rising ahead of schedule in EU & UK, predicted to overtake gasoline vehicles by 2025 (electrek)

Business Green은 'EU의 EV 판매는 '22년에 두 배로 증가, '25년 ICE 차량 판매를 추월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 또한 '35년까지 대부분 자동차 판매가 EV가 될 것이며, ICE차량과의 가격패러디는 '28년 달성 가능하다' 지적. <https://bit.ly/3r9SXyH>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 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명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